

김 정 규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아가치관 검사의 타당화 및
임상적 유용성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 현 희

자아가치관 검사의 타당화 및
임상적 유용성 연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김 정 규 교수지도

200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김 현 희

인 준 서

김현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자아가치관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자아가치관 검사의 좀 더 나은 임상적 유용성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2004년 6월~ 2004년 11월까지 서울 및 경인지역의 신경정신과, 종합병원, 재활치료 기관 등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외래로 통원 치료중인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통해 우울, 불안, 적응장애, 인격 장애B군으로 진단된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학력이 중졸 이상이고 연령은 16세에서 49세 범위에 해당되는 환자들로 질문지 형식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 임상집단은 임상집단과 연령 및 학력이 대응되는 서울 및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가치관 검사는 피검자의 행동을 지배하는 내적인 관념들을 조사해 냄으로써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며 나아가 행동수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써 피검자가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검사의 대상은 인지 기능의 손상이 없고 자아 가치관의 인식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피검자로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임상집단에서 수거된 검사지 중 인지기능의 손상이 염려되는 정신지체 및 만성 정신분열병환자들의 검사지와 환자의 표집수가 부족한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 두개 이상의 진단을 받은 표집 그리고 검사 반응이 1/3 이상 누락된 검사지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임상집단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비 임상집단에서 수거된 검사지 중 17세 미만 49세 이상이 응답한 검사 결과는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역시 누락이 1/3이상 되거나 일관된 검사반응을 보인 경우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는 비 임상집단에 배

포된 270부 중 여자 133부 남자109부로 총 242부가 사용되었고, 임상집단에 사용된 검사지는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과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로 구성된 우울장애 집단 54명 (남11명 여43명) 공황발작(Panic Attack)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강박장애(Obsessive - Compulsive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등으로 구성된 불안집단 19명 (남9명 여10명)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의 진단을 받은 집단 34 명(남11명 여23명) 인격장애 B군에 속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경계선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히스테리성 인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집단 25명(남6명 여19명) 으로 총 132부를 사용하였다.

자아가치관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함에 앞서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 alpha 계수를 구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자아가치관의 Cronbach alpha의 계수는 .97로 자아가치관 일치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4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요인 구조 부분에서는 자아가치관 척도 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각회전 (varimax)을 실시하였다. Scree Plot를 기초로 5개의 요인이 적절하다 판단하였고, 이는 기존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총 설명 변량은 51.36%였다.

기준타당도 연구 부분에서는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 간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구성 타당도 연구 부분에서는 임상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과 BACK의 우울척도(BDI) 그리고 내외 통제성 척도(IECS)와의 관계를 통하여 자아가치관 검사의 특성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다. 자아가치관과 BDI는 높은 부적상관을 자아가치관과 내외통제성 척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광범위한 정신건강 문제를 평가하는 간이정신진단 검사에서는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하위 요인별 상관관계는 본문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자아가치관 수준이 높으면 낮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2. 자아가치관 수준이 높으면 내적 통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3.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자기 존중감 척도는 SCL-90의 하위 척도인 우울감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4.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정서적 안정성 척도는 SCL-90의 하위 척도인 불안, 불안 공포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5.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대인관계 능력 척도는 SCL-90의 하위 척도인 대인 예민성 척도, 편집증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6.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문제해결 능력 척도는 SCL-90의 하위 척도인 강박증,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7.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대인 신뢰감 척도는 SCL-90의 하위 척도인 적대감, 정신증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8. 자아가치관 수준이 높으면 자아가치관 일치도 수준 역시 높을 것이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척도들에서 가설을 지지해 주었고, 더 유의한 수준에서 검증해주었다. 이로써 자아가치관 척도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검사 도구로써 불안, 우울, 적응장애 환자의 진단 및 예후와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사회성 훈련 등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자아치관 검사는 심리검사가 필요한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 그리고 임상현장에서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기에 유용한 도구라 시사된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검증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검사 도구의 사용에 있어 제언을 하였으며, 향후 연구 과제를 고려해 보고자 한다.

목차

논문 개요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3

II. 이론적 배경

- 1. 자아가치관 5
- 2.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 8
- 3.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관한 연구 9
- 4. 자아존중감과 적응장애에 관한 연구11
- 5. 자아존중감과 인격장애에 관한 연구12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13
- 2. 측정도구 15
 - 1) 자아가치관 검사 15
 - 2) 간이정신진단 검사 (SCL-90) 18
 - 3) BECK의 우울척도 (BDI) 21
 - 4) 내외통제성 척도 (IECS) 21
- 3. 연구 절차 22
- 4. 자료 분석 23

IV. 연구 결과 및 해석	23
1. 자아가치관 및 자아가치관 일치도의 신뢰도	25
2. 자아가치관의 요인 구조	26
3. 자아가치관의 판별 분석	30
4. 자아가치관 자아가치관 일치도 BDI 내외통제성 척도의 상관비교..	32
5. 자아가치관 검사와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상관비교	34
6. 자아가치관 검사의 비 임상집단과 임상집단간 비교	36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및 논의	41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43

참고 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 표1 > 자아 가치관	16
< 표2 > 자아 가치관 일치도	17
< 표3 > 간이정신진단 검사	19
< 표4 > 내외통제성 척도	22
< 표5 > 각 집단별 ST, STc, SCL-90, BDI, IECS 평균과 표준편차	24
< 표6 >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25
< 표7 > 자아가치관의 요인구조	26
< 표8 > 자아가치관의 판별함수 점수 집단 중앙치	31
< 표9 > 자아가치관 검사의 판별함수 결과	32
< 표10 > ST, STc, BDI, IECS의 상관	33
< 표11 > ST와 SCL-90의 하위요인 상관비교	35
< 표12 > ST SCL-90의 총점 상관비교	36
< 표13 > ST의 집단간 비교	37
< 표14 > STc의 집단간 비교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 사고, 행동 양식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양으로 존재한다.’ 라는 Thorndike의 명제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인간의 행동 특성을 양적인 측면에서 측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간 행동을 예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 특성 중에서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행동 특성에 관하여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나,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할 수 있다(김경희,1998). 이런 현상의 저변에는 인간행동 중에서도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인간의 정서, 감정, 태도 같은 속성이 어느 정도의 강도, 방향, 대상을 지니고는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다(김진규,1987; 변창진 & 문수백, 1994; 윤명희, 1996; 탁진국, 1996; Anastasi,1989; /Gregory,1992; Linn, 1989; Linn & Gronlund, 1995; Robinson, Shaver, & Wrightman, 1991).

그러나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인간의 정서, 감정, 자아개념, 가치 등은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Rosenberg(1965)에 의하면 낮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불안정하며 동요가 심한 자아상과 세상에 대한 그릇된 태도,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무가치감과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신체적, 정신적인 고립으로 이끌게 된다고 하였다. 즉, 자아 개념이 심리적 부적응에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Coopersmith(1967), Maslow(1974)등도 자아 존중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자아개념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연구에서 자아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임상 현장이나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을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빠른 시간에 심리적 취약점을 찾아내고 접근해 나가는데 보다 유용할 것이다.

병원 등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사로는 MMPI, 웨슬러 지능검사, 로샤검사, TAT검사, BGT검사, 문장완성검사 정도이다.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 개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심리검사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학교나, 상담 장면에서도 임상검사를 사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에도 의례적으로 임상적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도구가 만약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면 얻어진 결과는 별의미가 없을 것이며 또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검사라고 해도 피검자의 상태를 잘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참신하고 좋은 검사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 역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검사도구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으면서 피검자의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는 많은 검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산정하는 과정이 명료하지 않으며, 또 기준이 한번 정해지면 시간이 경과되어도 기준을 개정할 적이 없는 검사들이 사용되고 있다.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기준이 개정되어야 함에도 그냥 사용되어 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거나, 아예 기준을 제작하는 과정이 과학적이지 않아 기준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검사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순목, 1996). 본 연구가 자아가치관 검사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검사도구들이 환자들의 병리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도구들로 일반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존중감, 정서 안정성, 대인관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신뢰감등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진 자아가치관 검사는 외현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문제를 민감하게 탐지해내는 검사도구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에게 유용한 검사도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가치관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고, 좀 더 나은 유용성에 대해 조명해 보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자아가치관 검사의 신뢰도를 구하고, 기준 타당도 및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여, 자아가치관 검사의 임상적 유용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 아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1. 연구 문제

자아가치관 검사의 Cronbach alpha를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한다.

2. 연구문제

자아가치관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첫째, 자아가치관 검사의 요인 구조를 확인한다.

둘째, 기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의 차이를

검증한다.

셋째,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 BDI, 내외통제성(IECS) 척도와 의 상관을 검증한다.

가설 1) 자아가치관 수준이 높으면, 낮은 우울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자아가치관 수준이 높으면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스스로 예측 통제 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내적 통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설 3 -1)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자기 존중감 척도는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하위 척도인 우울감과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2)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정서적 안정성 척도는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하위 척도인 불안, 불안 공포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3)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대인관계 능력 척도는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하위 척도인 대인 예민성 척도, 편집증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4)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문제해결 능력 척도는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하위 척도인 강박증,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3 -5) 자아가치관 검사의 하위 척도인 대인 신뢰감 척도는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하위 척도인 적대감, 정신증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일 것이다.

가설 4) 자아가치관이 높으면, 자아가치관 일치도 수준 역시 높을 것이다.

4. 연구문제

자아가치관 검사가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 한다.

5.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자아가치관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이론적 배경

1. 자아가치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무엇으로 지각하고 있는가가 인간의 행동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William James에 의해 시작된 이래 자아개념은 꾸준히 학자들의 관심 대상이 되어왔다(이명숙,1994). William James(1910)는 자기 개념을 한 개인의 모든 성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자기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개인 인성의 일부분이며, 자기 개념은 자기에 대한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지각과 평가이다.

Erickson(1968)은 이러한 자기개념을 자아정체감 또는 각 개인의 일관된 자기 지각적 독자성이라고 했으며 C.G. Jung은 자기를 개체의 내면에 잠재해 있으면서 점차 성장과정에서 분화되어 성장해 나가는 실체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개체는 이러한 내면의 자기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개발해 나감으로써 즉, 개성화의 길을 걸음으로써 자기(Self)를 실현시켜 나가게 되고, 그 결과 건강한 삶을 살수 있다고 한다.

자기 존중감은 자기 가치감이란 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자아 가치관이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와 태도를 뜻한다.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될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타인으로부터 얼마나 인정받는다고 느끼는지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아가치관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자아가치관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중요한 타인들과의 접촉경험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으로써 성격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비교적 일생동안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인의 일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학업이나 일에 대한 태도, 진로를 선택하는 방식, 친구나 동료 를 대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태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김정규,2003). Rogers에 의하면 자아가치관이 발달하면서 긍정적 관심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는데 이는 타인의 애정과 인정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고 한다. 이때 개체가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관심을 받게 되면 개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타인 들은 대개가 인위적인 가치 조건을 설정해놓고 개체가 그 조건을 충족할 때 만 애정과 인정을 주는데 이로 말미암아 개체는 자신을 조건적으로만 긍정 적으로 보게 된다. 만일 타인으로부터 제시되는 이러한 가치 조건들이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이라면 개체는 자신의 경험의 일부를 부정하게 되고, 마침내 개체의 자기실현은 좌절된다.

만일 가치 조건이 그렇게 심하거나 제한적이지 않다면 개체는 융통성 있는 자아가치관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본인의 경험을 자신의 본원적인 유기체 과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엄격한 가치 조건에 의해 자기실현이 좌절되면 자기소외가 일어난다.

이때 가치조건은 자아가치관의 일부로 내면화되어 개체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데, 개체는 이러한 타인이 제시한 가치조건에 따라 자신의 유기체

경험을 평가한다. 그렇게 되면 시간을 두고 자아가치관은 점점 더 왜곡되고 부정확하게 된다. 그리고 본원적인 유기체의 평가과정과 가치조건 간의 불일치는 유기체 경험의 왜곡 또는 부정의 방식으로 해결된다. 이때 새로운 경험이 자아 가치관과 심하게 불일치되면 자아가치관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발생 한다(Rogers, 1951). 이렇듯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가치관은 그 개인의 행동양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긍정적인 자아가치관이 형성된 개인은 성취에 대한 높은 동기와, 환경에 잘 적응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이에 반해, 자아가치관이 부정적인 사람은 대체로 의욕적이지 못하고, 쉽게 무력감을 느끼며,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가치평가가 낮음으로 해서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한 또한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삶에 대하여 불만스럽게 느낀다.

자아가치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자아가치관은 우울증, 자기 파괴적 행동, 병리적인 행동들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 한다. 또한 Rosenberg는 자아존중감이 심리적 부적응에 강한 영향력을 준다고 보고 했으며, 불안,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Kaplan, Gold와 Mann 등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원식(1980), 손순자(1993), 강혜숙(1997), 서선주(1999), 강종훈(2000), 정영선(2003)등 많은 연구자들이 자아가치관이 정신건강과 행동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를 하였다.

2.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관한 연구들

불안장애와 같은 정서 장애가 혐오적인 사건에 대한 지각된 통제의 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는 오랫동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Alloy, Kelly, Mineka, & Clements, 1990; Barlow, 1988, 1991; Beck, Emery, & Greenberg, 1985; Chorpita & Barlow, 1988; Mineka, 1985).

Freud(1926)는 불안이란 자아기능의 하나로서 절박한 위협의 근원에 대하여 개인을 각성시키는 것이며, 개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내적, 외적 자극을 잘못 지각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Clark, 1988). 즉, 사건이 실제로 위협적이지 않음에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인지적 오평가로 인해 더 심각한 불안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갖은 개인들은 자극에 대하여 통제력이 약할 뿐 아니라, 근거를 내적인 요인에 귀인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타인에게서 받는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후속되는 동기화나 수행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Greenberg 등(1986, 1992)은 자아 존중감과 불안의 관계를 공포 관리 이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의미 있는 환경에서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우선적으로 가치 있는 대상이라고 느끼는 감정이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협 받을 때 불안이 야기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아 존중감은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심리적 기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위협 받을 때, 자아 존중감을 방어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책략을 사용하는 것을 Greenberg 등(1986)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Rosenberg(1965)는 자존감 수준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 수준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고립되어 있으며 자신감이나 지도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낮은 자존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세상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원만한 대인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불안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자아존중감과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Musa & Roach(1973), 지찬수(1996), 이옥련(1985), 조지숙(1992), 이계원(1994), 박경애(2002)등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대상 및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통된 주제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며,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한 개인은 불안을 야기하는 빈도가 높고, 자아 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불안은 개인의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써 개인의 성격형성과 발달, 그리고 정신역동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불안이 심한 사람은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자존감이 낮아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3. 자아존중감과 우울에 관한 연구들

Beck의 인지이론에 의하면 정상인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에는 부정적인 인지 과정 곧 자기 자신과 미래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인지과정이 작용한다고 한다(Beck,1987). 우울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는 것과 외부세계를 무의미하게 보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세계, 자기 자신, 그리고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우울과 관련된 이론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두 차원의 우울, 즉 대인관계

에서 야기된 우울과 성취 및 자아개념에서 비롯된 우울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 즉 자아 존중감이 성격형성 및 정신건강과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증의 귀인 유형에 관한 이론을 보면 Fitch(1970)는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은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내부귀인을 한다고 보고 했으며 Tennen과 Herzberger(1987)는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은 성공을 내부 귀인하고 실패는 외부 귀인 하는 반면,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는 내부귀인의 경향이 약하고 실패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부귀인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동, 2003).

Beck(1967)은 우울한 환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없으며 미래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개인의 자기도식이 부정적이고, 주로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울한 사람의 이러한 부정적 도식은 지각에 영향을 주어 선택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를 배제하고 부정적 정보를 과장하는 편파적인 지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eck은 우울증의 정서적 및 행동적 특징을 이러한 인지 과정의 편파적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Rehm(1977)은 부정적인 자기 인식과 평가가 우울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엄격하고 부정적인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부정적으로 왜곡된 자기관을 갖는다는 Rehm과 Beck등의 주장은 실행과제의 수행과 그에 대한 회상, 평가, 강화, 그리고 강화의 회상등과의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Campbell & Fehr, 1990; Dery & Kuiper,1981; Gotlib,1981; Kuiper,,1978; Lobits & Post, 1979; Rehm, 1977; Wener & Rehm, 1975).

사회적 행동 그 자체와 그에 대한 강화유형에 강조점을 두고 우울증을 설명하는 행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이 주어지고 긍정적 강화가 결여되므로, 그 결과로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우울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포함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4. 자아존중감과 적응장애에 관한 연구들

적응장애의 필수 증상은 확인 가능한 정신사회적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임상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장애에 동반되는 주관적인 고통이나 기능 장애는 주로 직업적, 학문적 수행 능력이 감소되고 사회적 관계가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면 학교가기를 꺼리거나, 부모와의 분리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과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보이는 등 생활의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또한 적응장애에는 자살 기도나 자살의 위험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 적응장애는 분명히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며 또한 측정 방법에 따라 유병률이 매우 다양하다. 외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개인들 가운데 적응장애가 주요 진단인 경우는 약 5~20%에 이른다. 불행한 생활환경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장애의 위험도가 증가 할 수 있다. 적응장애는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에 있는 개인의 질환의 경과를 복잡하게 만든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은 환경의 대처 방식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이거나 회피하게 됨으로써 적응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이효숙 1992). 또한 자신의 통제력 상실로 인하여 심각한 우울증이나, 자아부정 자기 비하에 빠질 높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적응장애의 광범위한 정후로 자아가치관과 적응장애 사이의 국내 연구는 많지 않으나, 자아가치관 및 자기 존중감이 적응장애와 관련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5. 자아존중감과 인격 장애 (히스테리, 경계선,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관한 연구들

Rorschach(1942)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다른 환자에 비하여 기능 수준이 높지만, 반면 비 구조화된 심리검사에서 원시적인 사고를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경증의 기능 수준으로 추측되어 정신분석에 의뢰된 환자들이 결국 분석의 종결을 가져오거나 종종 입원이 요구되는 원시적이고 퇴행적인 전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Hoch와 Polatin(1949)는 이러한 환자들을 유사 신경증적 정신분열증이라고 명명했다(최은주,1999).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강력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조종하려는 목적의 자살시도, 불안정한 자기감, 부정적인 정서, 자아비동조적, 정신증 경험, 충동성 능력에 비해 낮은 성취 등의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만성적인 심리적 고통과 함께 특히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자기 파괴적인 충동성은 종종 음주 문제, 섭식문제, 자살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보고한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련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보이는지를 확인한 연구들은 거의 볼 수 없다(최은주,1999).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불안정하고 강렬한 대인관계를 하는 것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중요한 부분이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 절하를 되풀이하고 사소한 거절에도 매우 강한 유기불안을 느끼고 부적절한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러한 증상은 주의 사람들을 당황시키고 결국 실제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한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인격 장애의 하나이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필수 증상은 생활전반에 걸쳐서 타인의 권리

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소아기 또는 사춘기 초기에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속임수와 조정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의 주요 특징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임상적 평가와 주변에서 모은 정보를 종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지닌 개인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냉담하며 냉소적이고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 고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즉 긴장감, 지루하고 권태로움, 우울 기분 등에 빠지기도 한다. 이들은 불안장애, 우울장애, 물질관련 장애, 신체화 장애 병적 도박 및 기타 충동조절 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의 필수 증상은 광범위하고 지나친 정서성과 관심을 끄는 행동이다. 자신이 관심의 초점이 되지 못하면 불편을 느끼고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활기차고 극적이며 자신에게 관심을 유도하며, 열정적이고 개방적이며 농담을 잘해서 초면인데도 상대를 매료시킨다. 그러나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자 요구함으로써 이런 특성들은 매력을 잃게 된다. 정서적 불안감은 자아개념의 저하나 성격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유영순,1993; 이옥경, 민형옥,이태용 1993; 이옥련1985; Kaplan &Wadden 1986).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를 위하여 2004년 6월~ 2004년 11월까지 서울 및 경인지역의 신경정신과, 종합병원, 재활치료 기관 등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외래로 통원 치료중인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통해 우울, 불안, 적응장애, 인격 장애 B군으로 진단된 환자들로 구성되었다. 학력이 중졸 이상이고 연령은 16세에서 49세 범위에 해당되는 되는 환자들로 질문지 형식의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 임상집단은 임상집단과 연령 및 학력이 대응되는 서울 및 경인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자아의 가치관의 인식정도를 판별하는 검사 도구로써 어느 정도의 인지기능이 유지되어야 가능한 검사도구 이므로 임상집단에서 수거된 검사지 중 인지기능의 손상이 염려되는 정신지체 및 만성 정신분열병환자들의 검사지와 환자의 표집수가 부족한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 두개 이상의 진단을 받은 표집 그리고 검사 반응이 1/3 이상 누락된 검사지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임상집단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비 임상집단에서 수거된 검사지 중 17세 미만 49세 이상이 응답한 검사 결과는 연구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역시 누락이 1/3 이상 되거나 일관된 검사반응을 보인 경우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는 일반인에게 배포된 270부 중 여자 133부 남자 109부로 총 242부가 사용되었다. 임상집단에 사용된 검사지는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과 기분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로 구성된 우울장애 집단 54명 (남11명 여43명) 공황발작(Panic Attack)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강박장애(Obsessive - Compulsive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등으로 구성된 불안집단 19명(남9명 여10명)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의 진단을 받은 집단 34명(남11명 여23명) 인격 장애 B군에 속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Antisocial Personality) 경계선 인격 장애(Borderline Personality) 히스테리성 인격 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집단 25명(남6명 여19명) 으로 총 132부를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아가치관, 자아가치관 일치도,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 BECK의 우울증척도(BDI)와 내외통제성(IECS)검사 이며 각 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아가치관 검사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대부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 형성해 놓은 관념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검자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위해서는 피검자가 자신에 대해 내면적으로 형성해 놓은 관념을 파악해야 한다(김정규, 2003). 자아가치관 검사는 피검자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구이다.

자아가치관 검사는 자아 가치관 86문항, 자아가치관 일치도 76문항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으며, 단독 실시가 가능하다. 전반부의 자아가치관척도는 자기 존중감, 정서 안정성, 대인 관계 능력, 문제 해결능력, 대인 신뢰감으로 구성 되어있고, 후반부의 자아가치관 일치도는 자기 존중감 일치도, 정서 안정성 일치도, 대인관계 능력 일치도, 문제해결 능력 일치도, 대인 신뢰감 일치도로 구성 되어있다. 검사의 응답자는 자기의 주관적인 느낌을 ‘아주 그렇다’, ‘그렇다’, ‘중간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의 5단계 평정을 하게 되어있다. 문항에 따라서 역 채점을 하는 문항이 첨가 되어있으며 이 검사는 획득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가치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가치관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7이고, 자아가치관 일치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4 이다.

각 하위 척도들의 증상 차원에 대한 부가적 설명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 자아가치관 >

척도명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정방향	역방향	
자기 존중감 (SV)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 정도를 측정.	5, 8, 17, 37	7, 11, 12, 21, 32, 40, 41, 49, 50, 64, 71, 77, 79, 81, 83	19 문항
정서 안정성 (ES)	감정의 기복과 예민성 정도를 측정.	1, 3, 6, 9, 28, 51, 55, 58, 65, 67, 78, 80, 82, 84	76, 85	16 문항
대인 관계 능력 (IR)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	2, 10, 19, 22, 29, 31, 44, 45, 53, 69, 70	15, 26, 46, 56, 72	16 문항
문제 해결 능력 (PS)	중요한 일이나 문제 상황을 당면했을 때 위기 대처능력을 측정.	13, 16, 23, 39, 47, 60, 61, 63	18, 25, 27, 30, 36, 52, 59, 68, 73	17 문항
대인	평소 대인관계의 질을 측정	24, 33, 38,	4, 14, 20, 34,	18

신뢰감 (IT)		42, 43, 48, 54, 57, 62, 66, 74	35, 75, 86	문 항
총 자아가치관 (ST)	다섯 개의 소척도 들을 종합하는 전체 자아가치관을 측정.	SV + ES + IR + PS + IT		86 문 항

<표 2> < 자아 가치관 일치도 >

척도명	내용	문항번호		문 항 수
		정방향	역방 향	
자기 존중감 일치도 (SVc)	현재 자신에 대한 지각된 자기 존중감과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기 존중감 사이의 일치정도 측정.	5, 7, 8, 11, 12, 17, 21, 32, 37, 40, 41, 49, 50, 64, 71		15 문 항
정서 안정성 일치도 (ESc)	현재 자신의 정서에 대한 지각된 안정성과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서적 안정성 사이의 일치정도를 측정.	1, 3, 6, 9, 28, 51, 55, 58, 59, 65, 67, 74, 75, 76		14 문 항
대인관계 능력 일치도	현재 자신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지각된 능력과 자신이	2, 10, 15, 19, 22, 26, 29, 31, 44,		16 문

(IRc)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사이의 일치 정도를 측정.	45, 46, 53, 56, 69, 70, 72	항
문제해결 능력 일치도 (PSc)	현재 자신의 현실적 문제해결 능력, 대처 능력과 관련한 지각된 능력과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사이의 일치 정도를 측정.	13, 16, 18, 23, 25, 27, 30, 36, 39, 47, 52, 60, 61, 63, 68, 73	16 문 항
대인 신뢰감 일치도 (ITc)	현재 자신의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신뢰감과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뢰감 사이의 일치정도를 측정.	4, 14, 20, 24, 33, 34, 35, 38, 42, 43, 48, 54, 57, 62, 66	15 문 항
총 자아가치관 일치도 (STc)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총 자아가치관과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아가치관 사이의 일치정도를 측정.	SVc + ESc + IRc + PSc + ITc	76 문 항

2) 간이정신진단검사 (SCL-90)

간이 정신진단 검사(SCL-90)은 Derogatis(1977)에 의해 개발되어 심리치료 및 항 정신약물 사용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 증상의 양상을 반영하는 임상진단 검사로써 유용성 있게 쓰이고 있는 자기 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 검사이다(김재환, 김광일, 1984).

총 90 문항 9개의 증상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없다(0점)’, ‘약간

있다(1점), ‘웬만큼 있다.(2점), ‘꽤 심하다(3점), ‘아주 심하다(4점)’로 5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하위척도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 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정도를 평가하고 현재의 장애 심각도를 나타내는 전체심도지수(GSI)를 나타내준다. SCL-90의 신뢰도는 대학생 기준 집단 164명을 대상으로 한 김재환의 연구(1984)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3~.83이었고, 원호택의 정상인 420명과 정신 신경증 환자 18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 alpha 계수가 .67~.89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74~.78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 검사도구는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각 하위 척도들의 증상차원에 대한 부가적 설명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 간이정신진단 검사 >

척도명	내용	문항수
신체화(SOM) Somatization	자율신경계의 영향 하에 있는 순환기, 소화기, 호흡기 기타 기관의 장애와 두통, 동통등 신체적 기능 이상에 대한 주관적 호소 증상	12문항
강박증(O-C) Obsessive -Compulsive	자신은 원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되풀이하게 되는 사고, 충동 및 행동 등 강박증상	10문항
대인 예민성(I-S) Interpersonal Sensitivity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감, 자격지심, 열등 감 등	9문항

우울(DEP) Depression	삶에 대한 관심의 철수, 동기의 결여, 활력의 상실, 절망감 및 자살에 대한 생각 등으로 나타나는 기분이나 감정의 저조 등 임상적 우울증의 증상과 일치되는 증상	13문항
불안(ANX) Anxiety	신경과민, 긴장, 초조, 두려움 및 불안과 관련된 신체 증상.	10문항
적대감(HOS) Hostility	분노, 공격성, 자극 과민성, 격분, 울분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내포하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을 반영.	6문항
불안공포 (PHOB) Phobic Anxiety	특정한 사람, 장소, 대상, 혹은 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불합리한 두려움이 생겨 회피 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 평가.	7문항
편집증(PAR) Paranoid Ideation)	편집증적 사고를 재려는 것으로 투사적 사고, 적대감, 의심, 자율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및 망상 등을 반영.	6문항
정신증(Psy) Psychoticism	가벼운 대인관계에서의 소원으로부터 정신병의 증상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영역의 증상을 반영. 즉 고립, 철수, 분열성적 생활양식 및 환각과 사고전파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일급 증상 포함	10문항
부가적 문항 (Additional Items)	9개의 증상차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채점되지도 않으나,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항.	7문항

3) BECK의 우울척도(BDI)

임상적인 우울 증상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우울증의 유형과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 Beck등(1967)이 개발한 BDI를 이영호(1993)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등 2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 15점은 가벼운 우울 상태, 16- 23점은 중한 우울상태, 24- 63은 심한 우울상태로 보았으며, 총점을 합산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1로 나타났다.

4) 내외 통제성 척도(IECS)

내외 통제성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통제 의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개념을 말한다. 내적 통제자는 자신이 자율적으로 운명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외적 통제자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의하여 지배된다고 생각한다. 즉, 내외통제성 척도는 사건에 대한 개인 자신의 통제력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내적 통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Rotter(1966)가 제작한 내외통제성향척도(Inter - External Control Scale) 29개 문항을 바탕으로 차재호, 공정자, 김철수(1973)등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다시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는 내적통제성과 외적통제성을 반영하는 2문장이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21문항 중 6개는 허구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성의 점수로서 환

산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점수는 각 문항에서 내적 통제에 반응한 점수를 1점으로 외적통제에 반응한 점수를 0점으로 하여 그 총점이 높게 나타날 경우 통제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허구 문항을 제외하면 최대의 내적통제성 점수는 15점이 된다.

내적 통제성 점수로 가산되는 문항의 번호와 허구문항으로 점수에 가산되지 않는 문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 내외 통제성 척도 >

구분	문항 번호	문항수
(1)번에 표시하면 내적통제성 1점 가산	4, 6, 7, 8, 10, 11, 14, 18	8문항
(2)번에 표시하면 내적통제성 1점 가산	2, 3, 13, 16, 17, 20, 21	7문항
점수에 가산되지 않는 허구 문항	1, 5, 9, 12, 15, 19	6문항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의 신경정신과, 정신보건 센터, 종합병원, 재활치료기관에 질문지 형식의 검사지를 배포한 후 각 기관의 담당자에게 수거를 요청하였다. 검사지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자가 일대일 또는 그룹의 형식을 취하여 설명을 한 후 기재 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 임상집단 역시 동일한 조건하에 검사지를 배포하였고, 검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사원, 공무원,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한 집단을 표집하였다. 2004년 6월초부터 11월 중순에 걸쳐 배포된 검사지는 비 임상집단 270부였고, 회수된 검사지는 비 임상집단 242부 임상 집단이 132부였으며,

이중에서 86부를 제외한 374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검사지의 응답시간은 40분에서 길게는 6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임상 집단
의 경우 비 임상집단에 비하여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다.

4. 자료 분석

- 1) 자아가치관 검사의 신뢰도에서는 문항내적 합치도를 추정하는
Cronbach alpha를 구하였다.
- 2) 요인 구조 부분에서는 자아가치관 척도 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였다.
- 3) 기준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임상 집단과 비 임상집단의 결과를
T-test 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ANOVA를 사용하였다.
- 4) 자아가치관 검사와 각 검사 척도의 Pearson 적률 상관관계를 계산하여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 5)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자아가치관 검사 점수가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을 잘 구분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 6) 각 집단별 자아가치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 이러한 작업은 SPSS 10.0 version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자아가치관 검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

하였다. 비 임상집단과 임상집단에게 동일한 조건을 제공한 후에 자아가치 관 검사가 포함된 질문지를 실시하여 여기서 얻어진 반응지의 결과를 분석 하였다. 먼저 132명의 임상집단과 242명의 비 임상집단을 구별하여 기준 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임상집단을 불안집단, 우울집단, 적응장애집단 인격 장 애B군 집단으로 세분화하여 나눈 후 각 집단별 자아 가치관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자아가치관 획득점수에서 비 임상집단은 307.90 임상집단에서는 248.30으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임상집단 내에서는 인격 장 애 집단과 우울, 불안, 적응장애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BDI와 간이정 신진단 검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내외통제성 척도에서 는 기대했던 만큼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서 차이를 보여주었다.

각 척도의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5>에서 제시하였다.

<표5> 각 집단별 ST, STc, SCL-90, BDI, IECS 평균과 표준편차

		ST	STc	SCL	BDI	IECS
비 임상집단	일반A (n=242)	307.90 (35.45)	292.30 (51.33)	22.02 (24.43)	.89 (1.99)	5.23 (1.92)
	우울B (n=54)	224.98 (42.52)	194.62 (42.06)	83.90 (39.29)	11.11 (8.84)	3.59 (1.22)
임상 집단	불안C (n=19)	246.15 (50.32)	209.73 (53.94)	95.94 (62.07)	5.42 (6.02)	3.52 (.84)
	적응D (n=34)	256.88 (31.52)	238.50 (55.59)	85.11 (60.75)	9.79 (6.90)	4.05 (1.17)

	인격E (n=25)	284.56 (23.71)	282.48 (52.46)	28.68 (18.24)	5.20 (4.50)	4.64 (1.86)
	B+C+D +E (n=132)	248.30 (44.08)	224.74 (59.07)	75.49 (51.74)	8.83 (7.67)	3.90 (1.36)

ST:자아가치관 STc:자아가치관일치도 SCL:간이정신진단검사 IECS:내외통제성취 () :표준편차

1. 자아가치관과 자아가치관 일치도의 신뢰도

자아가치관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조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각 하위 영역별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6>에 제시 되어있듯이 자아가치관은 .88 ~ .92까지 자아가치관 일치도는 .92 ~ .95까지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가치관 검사 실시요강에 기술되어있는 신뢰도 계수와 대부분 유사하거나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내었다.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다음 <표6>과 같다.

<표6>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자아가치관	자기 존중감(SV) .92 문제해결능력(PS) .90
	정서 안정성(ES) .89 대인 신뢰감(IT) .88
	대인 관계능력(IR) .91 총 자아가치관(ST) .97

자아가치관 일치도	자기존중감 일치도(SVc) .92	문제해결 능력 일치도(PSc) .92
	정서안정성 일치도(ESc) .92	대인신뢰감 일치도(ITc) .92
	대인관계능력 일치도(IRc) .95	총 자아가치관 일치도(STc) .94

2. 자아가치관의 요인 구조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가치관 척도 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다.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각회전(varimax)을 실시하였으며, Scree Plot를 기초로 5개의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자아가치관 검사의 실시 요강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1요인 대인신뢰감의 설명변량은 13.398%, 2요인 대인관계 능력의 설명변량은 25.604%이었고, 3요인 자기 존중감은 34.819%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4요인 정서 안정성은 43.933%의 설명력을 5요인 문제해결능력의 설명 변량은 51.364%를 나타내었다.

<표7>

자아가치관의 요인구조

각 하위 척도별 문항	요인계수
제1요인: 설명변량 13.398%	
사람들이 내 의견을 존중한다.	.579
나는 대체로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462
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느낀다.	.749

사람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다.	.524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어준다.	.674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다.	.688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473
생각이 다르면 상대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말하는 편이다.	.477
사람들의 신뢰를 별로 받지 못한다.	.562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 것이다.	.348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569
우리 가족들은 내 심정을 잘 이해해 준다.	.605

제2요인: 설명변량 25.604%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꺼내겠다.	.716
친구들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다.	.555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있다.	.720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펴기가 힘들다.	.535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눅이 들어서 다가가기 어렵다.	.516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648
할말이 있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못하겠다.	.624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판단한다.	.561
친구와 생각이 달라도 반대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519
사람들이 내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아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494
나는 별로 친구가 없다.	.621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할 때 대화에 끼어들기 어렵다.	.752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어렵다.	.606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651

모임에 나가면 다들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가만히 있다.	.557
누가 내게 말을 걸어오면 불안해 진다.	.565
어디를 가든 내 밥그릇은 찾아 먹을 수 있다.	.620
사람들이 나를 좀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444
관계가 나빠질까봐 상대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준다.	.659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686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650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피하고 싶다.	.537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도 불안하지 않다.	.457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546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	.444

제3요인: 설명변량 34.819%

나는 내 친구들 보다 못하다.	.425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다.	.607
때로는 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같이 느껴진다.	.556
나는 미래를 자신감 있게 바라본다.	.586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564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483
앞으로 내게 닥칠 일을 해낼 자신이 있다.	.607
나는 내 자신이 싫다.	.591
내 자신에 만족하는 편이다.	.475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470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433

이제까지 실패보다는 성공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449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624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잘 생겼다.	.404
내가 처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다.	.491
나는 대체로 행복하다.	.417
친구들에 비해 나는 성공한 편이다.	.309
자주 까닭 모르게 우울해 진다.	.575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572
다른 사람들만큼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538
나는 내가 남자(혹은 여자)인 것이 좋다.	.583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싶다.	.501
나는 무엇이든 해낼 자신감이 있다.	.582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건강하고 튼튼하다.	.540
나는 대체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443

.....

제4요인: 설명변량 43.933%

나는 쉽게 감정이 잘 상한다.	.660
자주 긴장되고 불안하다.	.612
나는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다.	.518
혹시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봐 신경을 많이 쓴다.	.625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많이 의식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559
가끔 사소한 일로 잘 빠친다.	.595
누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불안해 진다.	.481
나는 대범하지 못하고 너무 예민하다.	.572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겁부터 난다.	.575

.....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도 결정을 잘 못 내리겠다.	.579
왠지 모르게 늘 불안감을 느낀다.	.528
비판적인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400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하다.	.357
내 자신에 대해 종종 창피하게 생각한다.	.386
갑자기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자주 있다.	.547

제5요인: 설명변량 51.364%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보면 피해버린다.	.431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해버린다.	.530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린다.	.605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편이다.	.385
나는 지금까지 뭐든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다.	.490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주 이랬다 저랬다 한다.	.567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해내는 일이 별로 없다.	.759
대부분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가 없다.	.345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내 행동이 많이 좌우된다.	.496

3. 자아가치관 검사의 판별 분석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볼 때, 자아가치관 척도는 우울이나, 불안 장애의 집단이 정상 집단보다 자아가치관 점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 된다. 실제로 본 연구에 포함된 피험자들에게서 산출한 자아가치관 점수의 총점은

평균치 상에서 정상 집단과 임상집단 우울, 불안, 적응 장애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자아 가치관 점수가 이러한 진단 준거(정상, 우울, 불안, 적응장애)를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판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상집단, 우울, 불안, 적응장애의 4 집단에 대해 자아가치관 척도 문항 점수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단 판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판별함수가 얻어졌다.

판별 함수 1의 정준 상관계수는 .885, 판별 함수 2의 정준 상관계수는 .872, 판별 함수 3의 정준 상관계수는 .80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연구에서 설정된 4개의 집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3개의 판별 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4집단이 자아가치관 검사에 의해 서로 의미 있게 구별 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 <표8>은 자아가치관 검사에 의한 판별함수 점수의 집단 중앙치이다.

<표8> 자아가치관의 판별함수 점수 집단 중앙치

집단	함수1	함수2	함수3
정상집단	.363	1.119	-9.06
우울집단	-3.786	-1.829	-.817
불안집단	-.274	-1.959	5.399
적응장애	3.582	-3.962	-1.075

다음 <표9>는 자아가치관 검사에 의한 판별 함수 결과이다.

<표9>

자아가치관 검사의 판별함수 결과

실제집단	사례 수	예측 소속 집단			
		정상집단	우울집단	불안집단	적응장애
정상집단	242	205 (84.7%)	20 (8.3%)	9 (3.7%)	8 (3.3%)
우울집단	54	10 (18.5%)	44 (81.5%)	0 (0%)	0 (0%)
불안집단	19	4 (21.1%)	0 (0%)	15 (78.9%)	0 (0%)
적응장애	34	2 (5.9%)	2 (5.9%)	0 (0%)	30 (88.2%)

자아가치관 문항 점수들에 의한 판별 분석 결과, 정상 집단을 84.7% 정확히 정상집단으로 판별했으며, 우울집단의 81.5%를 우울집단으로, 불안집단의 78.9%를 불안집단으로, 적응장애 집단의 88.2%를 적응장애 집단으로 판별했다. 또한 실제 불안집단과 우울집단을 정상집단으로 잘못 판별하는 비율은 매우 작았다(각각 21.1%, 18.5%).

4. 자아가치관 검사(ST), 자아가치관 일치도(STc), BDI, 내외통제성(IECS)의 상관 비교 (N=374)

자아가치관, 자아가치관 일치도, BDI, 간이정신진단 검사, 내외통제성 척도와의 상관을 비교 하기위해 Pearson 적률 상관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자아가치관과 BDI는 $-.67(p<.001)$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자아가치관 일치도와 BDI 역시 $-.50(p<.001)$ 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아가치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개체가 낮은 우울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 가치관과 우울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다. 자아가치관, 자아가치관 일치도와 내외통제성은 각각 $.38$ $.39$ ($p<.001$)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라 할 수 있으며 자아가치관이 높을수록 내적통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아가치관의 하위 척도와 BDI, 내외통제성 척도의 상관 비교는 <표10>에서 제시하였다.

<표10> < ST, STc, BDI, IECS의 상관 >

	BDI	IECS	SV	ES	IR	PS	IT	ST	STc
BDI	1.00								
IECS	$-.36^{***}$	1.00							
SV	$-.66^{***}$	$.34^{***}$	1.00						
ES	$-.63^{***}$	$.36^{***}$	$.70^{***}$	1.00					
IR	$-.51^{***}$	$.38^{***}$	$.70^{***}$	$.66^{***}$	1.00				
PS	$-.53^{***}$	$.27^{***}$	$.76^{***}$	$.74^{***}$	$.64^{***}$	1.00			
IT	$-.62^{***}$	$.34^{***}$	$.79^{***}$	$.75^{***}$	$.72^{***}$	$.70^{***}$	1.00		
ST	$-.67^{***}$	$.38^{***}$	$.90^{***}$	$.87^{***}$	$.83^{***}$	$.86^{***}$	$.90^{***}$	1.00	

STc	-.50 ^{***}	.39 ^{***}	.67 ^{***}	.79 ^{***}	.73 ^{***}	.67 ^{***}	.70 ^{***}	.84 ^{***}	1.00
-----	---------------------	--------------------	--------------------	--------------------	--------------------	--------------------	--------------------	--------------------	------

***p<.001 **p,.01 *p,.05

SV:자존중감 ES:정서안정성 IR:대인관계능력 PS:문제해결능력 IT:대인신뢰감

ST:자아가치관 STc:자아가치관일치도 IECS: 내외통제성

본 연구의 가설 중 하나였던 자아가치관과 자아가치관 일치도의 관계는 .84(p<.001)의 높은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Carl Rogers의 학설에 따르면 이상적 자아가치관과 현실적 자아가치관의 차이가 클수록 심리적 갈등이 심하다고 하였으며, Karen Horney 및 Fritz Perls 등은 이러한 불일치가 심리장애를 발생한다고 하였다(Perls et al,1951).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높은 자아가치관을 가진 개인은 자아가치관 일치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현실적 자아가치관과 이상적 자아가치관이 조화롭게 균형 잡혀 있으며, 심리적 갈등이 적은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5. 자아가치관 검사(ST)와 간이정신진단 검사(SCL-90)의 하위 척도

상관비교 (N=374)

자아가치관의 5개의 하위척도와 간이정신진단 검사 9개의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을 비교하였다. 자아존중감과 간이정신진단검사의 하위척도들은 -.41~ -.64(p<.001)까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우울, 대인 예민성과의 관계에서 보다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서안정성과 하위척도들은 -.57 ~ -.74(p<.001)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강박증, 우울,

불안에서 보다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 능력 부분에서는 $-.38 \sim -.57(p<.001)$ 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예민성, 우울, 불안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문제해결 능력은 $-.38 \sim -.59(p<.001)$ 를 보였으며, 강박증과 우울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신뢰감에서는 $-.42 \sim -.60(p<.001)$ 로 나타났으며 예민성, 편집증, 불안공포에서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각 하위요인별 상관은 <표11>에서 제시하였다.

<표11> < ST와 SCL-90의 하위요인 상관비교 >

	SOM	O-C	I-S	DEP	ANX	HOS	PHOB	PAR	PSY	SV	ES	IR	PS	IT	ST	STc
SOM	1.00															
O-C	.79***	1.00														
I-S	.72***	.79***	1.00													
DEP	.79***	.83***	.82***	1.00												
ANX	.84***	.85***	.81***	.86***	1.00											
HOS	.63***	.69***	.79***	.63***	.74***	1.00										
PHOB	.65***	.67***	.78***	.63***	.79***	.66***	1.00									
PAR	.71***	.78***	.85***	.75***	.85***	.77***	.81***	1.00								
PSY	.79***	.79***	.78***	.80***	.85***	.80***	.70***	.82***	1.00							
SV	-.41***	-.52***	-.55***	-.64***	-.53***	-.39***	-.45***	-.48***	-.50***	1.00						
ES	-.59***	-.74***	-.70***	-.73***	-.71***	-.58***	-.57***	-.65***	-.66***	.70***	1.00					
IR	-.38***	-.45***	-.57***	-.55***	-.50***	-.38***	-.45***	-.42***	-.45***	.70***	.66***	1.00				
PS	-.38***	-.59***	-.52***	-.56***	-.50***	-.38***	-.38***	-.49***	-.48***	.76***	.74***	.60***	1.00			

IT	-.42***	-.52***	-.60***	-.54***	-.56***	-.44***	-.56***	-.59***	-.52***	.79***	.75***	.72***	.70***	1.00
ST	-.50***	-.64***	-.67***	-.68***	-.64***	-.49***	-.55***	-.60***	-.59***	.90***	.87***	.83***	.86***	.90***
STc	-.47***	-.64***	-.63***	-.63***	-.61***	-.52***	-.51***	-.60***	-.60***	.67***	.79***	.73***	.67***	.70***

***p<.001 SV:자기존중감 ES:정서안정성 IR:대인관계능력 PS:문제해결능력 IT:대인신뢰감 ST:자아가치관
STc:일치도 SOM:신체화 O-C:강박증 I-S:대인예민성 DEP:우울 ANX:불안 HOS:적대감 PHOB:불안공포 PAR:
편집증 PSY:정신증

자아가치관 검사와 SCL-90 총합의 상관비교 (N=374)

<표12> < ST SCL-90의 총점 상관비교 >

	SV	ES	IR	PS	IT	ST	STc
SCL총합	-.57***	-.75***	-.52***	-.55***	-.58***	-.67***	-.65***

***p<.001 **p<.01 *p<.05

SV:자기존중감 ES:정서안정성 IR:대인관계능력 PS:문제해결능력 IT:대인신뢰감 ST:자아가치관 STc:일치도

자아가치관의 하위척도와 광범위한 정신질환을 판별해내는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비교에서는 -.52~ -.75(p<.0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6. 자아가치관 검사의 비 임상집단과 임상(우울, 불안, 적응장애,

인격장애 B군) 집단간 비교 (N=374)

비 임상집단과 임상집단간의 자아가치관 점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자아가치관의 점수는 (F=7.36, p=.007)으로 자아가치

관 일치도에서는 (F=5.11, p=.024)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자기 존중감(F=8.63, p=.004), 문제 해결능력 (F=12.25, p=.001) 대인 신뢰감(F=14.50, p=.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정서 안정성과 관계 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가치관 일치도의 하위요인에서는 자기 존중감(F=26.38, p=.000), 문제 해결능력(F=6.24, p=.013), 대인 신뢰감(F=6.17, p=.013)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안정성과 관계 일치도에서는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임상집단간 차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격 장애 집단의 영향으로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아가치관의 하위 요인들과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으로 구성된 비 임상집단이 각 하위 척도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부분의 결과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지지해 주었으나, 히스테리성 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등으로 구성된 인격장애 B군은 일반 집단과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13>에서 기술하였다.

<표13>

< ST의 집단간 비교 >

	비 임상 집단A (n=242)	임상집단					F	사후
		우울B (n=54)	불안C (n=19)	적응D (n=34)	인격E (n=25)	B+C+ D+E (n=132)		
SV	68.73 (9.18)	47.96 (12.22)	54.05 (14.71)	55.61 (7.07)	59.88 (12.03)	53.06 (12.27)	58.83***	A>B A>C A>D

ES	53.61 (8.76)	35.68 (6.69)	38.31 (11.90)	44.41 (8.34)	49.20 (5.25)	40.87 (9.42)	61.49***	E>B E>D A>E
IR	58.99 (9.60)	44.25 (7.73)	48.21 (8.13)	49.26 (9.26)	57.64 (5.50)	48.65 (9.16)	37.36***	A>B
PS	60.00 (8.01)	44.22 (11.40)	53.10 (6.57)	51.88 (9.84)	55.56 (6.31)	49.62 (10.58)	40.77***	A>B E>D
IT	66.56 (7.45)	52.85 (10.53)	52.47 (11.65)	58.70 (10.19)	62.28 (6.82)	50.09 (10.65)	39.66***	A>B D>E
ST	307.90 (35.45)	224.98 (42.52)	246.15 (50.32)	256.88 (31.52)	284.56 (23.71)	248.30 (44.08)	69.63***	A>B A>C A>D

***p<.001 **p<.01 *p<.05

SV:자기존중감 ES:정서안정성 IR:대인관계능력 PS:문제해결능력 IT:대인신뢰감

자아가치관에 대한 일반집단과 각 임상집단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일반 집단과 우울, 불안, 적응장애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p<.001$) 인격 장애B군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우울집단과 불안 집단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불안 집단의 경우 일반인 집단과의 높은 차이를 보였으나, 적응장애집단과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아 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에서는 일반인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반면, 불안 집단과 적응장애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인 집단과 자아가치관 점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인격 장애B 집단은 신뢰감과 문제해결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1$)

자기 존중감: 일반집단과 우울 불안 적응장애 집단에서는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격장애 집단과는 ($p < .01$)에서 차이 보였다.

임상 집단 내에서는 우울집단이 인격 장애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 타 집단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서 안정성: 일반집단과 우울, 불안, 적응장애 집단에서는 ($p < .001$)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인격장애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임상 집단 내에서는 우울집단과 불안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적응장애와 인격장애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인관계능력: 일반집단과 우울, 불안, 적응장애집단($p < .001$)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인격장애 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임상 집단 내에서는 우울과 인격장애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 < .001$) 우울, 불안, 적응 장애 세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대인 신뢰감: 일반집단과 우울, 불안, 적응 장애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1$) 일반집단과 인격장애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다. 임상집단 내에서는 우울과 인격장애 집단은 차이가 있었으나, 불안, 우울, 적응장애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문제해결 능력: 일반집단과 우울, 적응장애는 ($p < .001$)에서 불안장애는 ($p <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일반집단과 인격장애 집단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집단내에서는 우울집단은 불안($p < .01$), 인격($p < .001$), 적응장애 ($p < .01$)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불안, 인격, 적응장애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음에 제시한 <표14>은 자아가치관 일치도 점수를 집단간 비교한 것이다.

<표14>

< STc의 집단간 비교 >

	비 임상 집단A (n=242)	임상집단					F	
		우울B (n=54)	불안C (n=19)	적응D (n=34)	인격E (n=25)	B+C+ D+E (n=132)		
SVc	58.64 (10.44)	35.12 (11.94)	42.00 (12.46)	44.41 (11.10)	56.84 (9.46)	42.62 (13.75)	64.80**	A>C A>B
ESc	51.47 (11.30)	28.14 (8.71)	30.94 (8.87)	41.00 (8.63)	46.24 (12.77)	35.28 (12.05)	64.05**	A>C A>B
IRc	58.99 (9.60)	44.25 (7.73)	48.21 (8.13)	49.26 (9.26)	57.64 (5.50)	48.65 (9.16)	37.36**	A>C A>B
PSc	59.88 (12.80)	39.61 (10.90)	45.05 (12.08)	50.79 (14.69)	59.80 (12.12)	47.09 (14.40)	33.65**	A>C
ITc	59.43 (9.77)	46.11 (9.42)	44.78 (10.41)	49.14 (13.05)	58.16 (9.89)	48.98 (11.56)	29.92**	A>B
STc	292.30 (51.33)	194.62 (42.06)	209.73 (53.94)	238.50 (55.59)	282.48 (52.46)	224.74 (59.07)	51.78*	

***p<.001 **p<.01 *p<.05

SVc:자기존중감일치도 ESc:정서안정성일치도 IRc:대인관계능력일치도 PSc:문제해결능력일치도 ITc:대인신뢰감일치도

V. 논의 및 제언

1. 결과 및 논의

Rosenberg(김기정 편역,1995)는 그의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자아 가치관과 불안, 우울 등이 확실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BECK의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지지되었다. 이는 자아가치관이 내면화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원식(1980)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기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가치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자기를 무가치한 인물로 보며 종종 불안을 느끼고 우울해하며 불행스럽게 느낀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행동도 불안정하고 소극적이게 된다고 한다. 강종훈(2000)은 그의 연구에서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우울과 염세주의를 보이는데, 우울한 사람의 특성은 낮은 자아 존중감, 자아감, 활동력 저하, 대인관계 부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 가치관이 심리적 부적응을 예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 및 가치관 등 정의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심리검사 도구 중 자아가치관 검사에 주목하여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아가치관 검사는 피검자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도구로서 자아 가치관 86문항, 자아가치관 일치도 76문항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의 자아가치관 척도는 자기 존중감, 정서 안정성, 대인 관계 능력, 문제 해결능력, 대인 신뢰감으로 구성 되어있고, 후반부의 자아가치관 일치도는 자기 존중감 일

치도, 정서 안정성 일치도, 대인관계 능력 일치도, 문제해결 능력 일치도, 대인 신뢰감 일치도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92의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요인 분석부분에서는 새로운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보다 이전의 결과들과 비교, 정리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이전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요인수를 5개로 지정해 주고, varimax 방법으로 회전시켜 각 요인에 대한 문항들의 요인 계수를 구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총 설명변량은 51.36%로 확인 되었다.

일반 집단과 우울, 불안, 적응장애, 성격장애B군의 진단을 받은 임상집단을 비교하여 기준 타당도를 확보하였으며, 광범위한 정신건강 문제들을 평가하는 간이정신진단 검사, BEI, 내외통제성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구성 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일반인 집단과 임상집단의 자아가치관검사의 획득 점수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임상 집단 내에서도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히스테리 및 경계선 환자 군으로 구성된 인격장애 B집단의 경우 일반 집단과의 평균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임상 집단 내에서는 타 집단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이 특이점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자아가치관 검사의 구성 타당도 검증 결과 자아가치관 검사와 BDI는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내외통제성 척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하위척도의 경우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해 주었으며 전체점수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자아가치관 검사는 높은 신뢰도와 기준 타당도, 구성 타당도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집단과 임상 우울, 불안, 적응 장애 집단의 자아가치관 점수를 판별 분석한 결과 각 .885, .872, .804의 정준 상관계수를 갖는 3개의 판별 함수가 얻어졌다. 이는 연구에서 4개의 집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3개의 판

별 함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4집단이 자아가치관 검사에 의해 서로 의미 있게 구별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준거 관련 타당도를 보충하였으며,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의 쓰임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자아가치관 검사의 개발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자아가치관 검사는 병리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은 일반 청소년과 성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며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임상 현장에서 피검자의 정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판별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상 집단과 우울, 불안, 적응장애 집단의 변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울 및 불안 장애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에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인지적 오류와 관련된 연구에도 활발한 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검사도구가 상담 및 임상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사용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문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타당화의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사례의 수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 임상집단 중 불안을 호소하는 표집의 경우 사례의 수가 19case로 전체 불안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뢰도를 검증함에 있어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만을 제시 하였으므로, 검사 재검사신뢰도와 반분신뢰도를 검증하여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도구들이나, 자기 보고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응답자의 반응태도에 의해 반응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자아가치관 검사에 대한 신뢰도와 기준 타당도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나, 폭 넓게 사용되는 검사도구인 만큼 충분한 재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었던 자아가치관 일치도에 대한 검증도 추후 연구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곽금주, 김근영(1997). 자가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Ⅱ):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10(1),15-26.
- 권석만(1996).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 유발 생활사건과 인지내용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서,5(1).
- 권영란(2002). 자기애적 성향자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승석(2002). 우울집단과 사회불안집단의 부정적 정보에 대한 통제 처리 및 자동처리 편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웅(1975). 신체적 변인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
- 김남재(1996). 우울과 대인불안의 인지적특성 비교. 덕성여대 논문집 제25집.
- 김동직(1992). 스트레스와우울 및 불안에 있어서 자아정체감 수준간의 차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권(1984). 생활사건과 우울 및 인지에 관한 일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혜(1998).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2004). 부정적인 신체상을 지닌 여대생에 대한 게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신체상자아가치관우울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86).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경, 장근영(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5(1),143-156.

- 김정규(2003). 자아가치관 실시요강. 서울: 한국가이던스.
- 김재환, 김광일(1984).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Ⅲ. 정신건강연구.2, 278-311.
- 김중술, 박동권(1995). 간편인성검사. 한국가이던스
- 박성균, 정인과(2002). 임상실제에서의 정신과적 면담. 하나의학사.
- 박혜진(2003). 자기애. 자기 효능감, 자의식 및 우울간의 관계.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용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인희(2001). 역할정체와 자아개념의 유사성이 우울과 학습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섭(1994). 자아개념의 다면 위계적 모형. 교육심리연구. 한국교육학회.
- 송인섭(1996). 자아개념의 교육심리학적 의미. 교육심리연구. 10(1), 1-24.
- 이근후역(1995).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 하나의학사.
- 이정자(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현(2000). 자아개념검사의 중다특성 중다방법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오복자(1984). 내 외통제성격과 자아존중 및 우울과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경균(1995). 자아존중감 향상과 대인불안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적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숙(1980).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소집단 훈련의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인기(1983). 가정 환경과 청소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장대식(1988). 종합병원 비정신과 입원환자의 우울과 불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병재(1973). 자아개념 이론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정남운(1990). 부정적 사건에 대한 귀인과 통제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일호(1991). 자기상과 우울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추소정(2002). 정서적 학대와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정(2002). 대처방식, 내외통제성, 자아존중감에 따른 죽음불안의 발달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21(2).
- 홍은화(1985). 자아개념형성에 미치는 요인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astasi,(1982). Psychological testing.
- Battle,J.(1992). Culture Free Self Esteem Inventories. 2nd Edition. Austin.
Pro-Ed.
- Beck,A.T.(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 Beudet, M.P.(1996). Depression,Health reports,7(4),11-25.
- Coopersmith, Stanley(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Freeman.
- Germain, R. B.(1978). Self concept and self esteem reexamined.
Psychology in the schools, 15, 386-390.

- Greenberger, E. & Sorensen, A, B.(1974). Toward a concept of psychological matur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 329-358.
- Musa,H.E., & Roach,M.E.(1973). Adolescent appearance and self-concept. *Adolescence*. 8,385-394..
- Shrauger, J.S., & Rosenberg,S(1970). Self-esteem and the effects of success and failure feedback on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38,404-417.
- Victor Gess(1982). The Self-concept.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8,pp4-5.
- Wylie,R.C.(1979). *The self 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 Lincoln: University Nebraska Press.

ABSTRACT

A Study of validity of the Self-Concept Inventory

Kim, Hyun-H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elf-Concept Inventory, and to present the clinical effectivity of it.

From June-November 2004, a total of 132 inpatients or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Anxiety Disorder, Adjustment disorder, Cluster B Personality Disorders and a total of 242 subjects that had no history of either disorder complet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at included the Symptom Check list-90(SCL-90), Inter-External Control Scale(IECS),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and Self-Concept Inventory. Participants were the adolescents or adults between the age of 16 and 49.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the scores of the Self-Concept Inventory subscale showed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s in group variable.

Second, internal consistency by the value of Cronbach' alpha of .97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lf-concept Inventory and BDI, SCL-90 were ranged $-.67$. This result strongly supports the Self-Concept Inventory has a significant valid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elf-Concept Inventory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the assessment of patient with Depressive, Anxiety, Adjustment Disorder. Therefore this inventory could be widely and extensively used in rehabilitation program, counseling for adolescent and adult. In addition, Self-Concept Inventory is a useful tool for psychotherapy which is needed for an assessment. It also gives a researcher valuable information during clinical setting.

The power of reliability and validity has continuously made up for the limitation and an application of the test in the current research through study. The researcher expects more study using this basic result.

< 부록 >

1. 자아가치관 검사
2. 자아가치관 일치도 검사

자아가치관 검사

다음은 당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누구나가 자신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맞고 틀린 답은 따로 없습니다. 읽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 보기 >

문제: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다.

답: 만일 당신이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라면 1번에 0표하시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떠오르는 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마시고 모두 대답해 주십시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1. 나는 쉽게 감정이 잘 상한다.	1	2	3	4	5
2.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꺼내겠다.	1	2	3	4	5
3. 자주 긴장되고 불안하다.	1	2	3	4	5
4. 사람들이 내 의견을 존중한다.	1	2	3	4	5
5. 나는 내 친구들보다 못하다.	1	2	3	4	5
6. 나는 신경이 좀 예민한 편이다.	1	2	3	4	5
7.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다.	1	2	3	4	5
8. 때로는 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9. 친구들의 성공소식을 들으면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다.	1	2	3	4	5
10.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보면 피해버린다.	1	2	3	4	5

11. 나는 미래를 자신감 있게 바라본다.	1	2	3	4	5
12.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1	2	3	4	5
13. 어려운 일이 생기면 피해버린다.	1	2	3	4	5
14. 나는 대체로 사람을 잘 믿는 편이다.	1	2	3	4	5
15.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있다.	1	2	3	4	5
16.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17. 나는 내 자신이 싫다.	1	2	3	4	5
18. 앞으로 내게 닥칠 일을 해낼 자신이 있다.	1	2	3	4	5
19.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펴기가 힘들다.	1	2	3	4	5
20. 나는 가족들로부터 사랑 받는다고 느낀다.	1	2	3	4	5
21. 내 자신에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22.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눅이 들어서 다가가기 어렵다.	1	2	3	4	5
23.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다.	1	2	3	4	5
24. 사람들이 나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다.	1	2	3	4	5
25.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1	2	3	4	5
26.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편이다.	1	2	3	4	5
27. 하려고 마음먹은 일은 해내는 편이다.	1	2	3	4	5
28.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1	2	3	4	5
29. 할말이 있어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못 하겠다.	1	2	3	4	5
30.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판단한다.	1	2	3	4	5
31. 친구와 생각이 달라도 반대의견을 말하지 못한다.	1	2	3	4	5
32. 이제까지 실패보다는 성공했던 일이 더 많았던 것 같다.	1	2	3	4	5
33. 혹시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줄까봐 신경을 많이 쓴다.	1	2	3	4	5
34. 우리 가족들은 나를 믿어준다.	1	2	3	4	5
35. 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다.	1	2	3	4	5

36. 사람들이 내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아도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1	2	3	4	5
37. 나는 지금까지 뭐든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다.	1	2	3	4	5
38.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5
39.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주 이랬다 저랬다 한다.	1	2	3	4	5
40.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41.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잘 생겼다.	1	2	3	4	5
42. 나는 별로 친구가 없다.	1	2	3	4	5
43.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많이 의식하며 행동하는 편이다.	1	2	3	4	5
44.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대화에 끼어들기 어렵다.	1	2	3	4	5
45.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46. 생각이 다르면 상대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말하는 편이다.	1	2	3	4	5
47.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해내는 일이 별로 없다.	1	2	3	4	5
48. 사람들의 신뢰를 별로 받지 못한다.	1	2	3	4	5
49. 내가 처리한 일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다.	1	2	3	4	5
50. 나는 대체로 행복하다.	1	2	3	4	5
51. 가끔 사소한 일로 잘 빠친다.	1	2	3	4	5
52.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2	3	4	5
53. 모임에 나가면 다들 나보다 똑똑한 것 같아 가만히 있다.	1	2	3	4	5
54. 누가 내게 말을 걸어오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55. 누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불안해진다.	1	2	3	4	5
56. 어디를 가든 내 밥그릇은 찾아 먹을 수 있다.	1	2	3	4	5
57. 어려운 상황이 되면 친구들이 나를 외면할 것이다.	1	2	3	4	5
58. 나는 대비하지 못하고 너무 예민하다.	1	2	3	4	5
59. 대부분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가 없다.	1	2	3	4	5
60.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겁부터 난다.	1	2	3	4	5
61.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도 결정을 잘 못 내리겠다.	1	2	3	4	5

62. 사람들이 나를 좀 대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1	2	3	4	5
63.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내 행동이 많이 좌우된다.	1	2	3	4	5
64. 친구들에 비해 나는 성공한 편이다.	1	2	3	4	5
65. 웬지 모르게 늘 불안감을 느낀다.	1	2	3	4	5
66. 관계가 나빠질까봐 상대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준다.	1	2	3	4	5
67. 자주 까닭 모르게 우울해진다.	1	2	3	4	5
68. 나도 다른 사람만큼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1	2	3	4	5
69.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70.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피하고 싶다.	1	2	3	4	5
71.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1	2	3	4	5
72. 처음 보는 사람들과 만나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5
73.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1	2	3	4	5
74. 사람들이 나를 좋지 않게 보는 것 같다.	1	2	3	4	5
75.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편하다.	1	2	3	4	5
76. 비판적인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1	2	3	4	5
77. 다른 사람들만큼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1	2	3	4	5
78. 시험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하다.	1	2	3	4	5
79. 나는 내가 남자(혹은 여자)인 것이 좋다.	1	2	3	4	5
80.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싶다.	1	2	3	4	5
81. 나는 무엇이든 해낼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82. 내 자신에 대해 종종 창피하게 생각한다.	1	2	3	4	5
83.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건강하고 튼튼하다.	1	2	3	4	5
84. 갑자기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자주 있다.	1	2	3	4	5
85. 나는 대체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1	2	3	4	5
86. 우리 가족들은 내 심정을 잘 이해해 준다.	1	2	3	4	5

자아가치관 일치도 검사

다음의 질문들은 자신의 이상적 모습에 비추어 현재의 자기 모습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해 조금씩은 불만스러워 합니다.

다음은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불만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표해주십시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 보기 >

문제: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을 잘 못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답: 만일 당신이 사람을 앞에서 할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 불만이 아주 많다면 1번에 이런 불만이 전혀 없다면 5번에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불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 문제가 안 될지라도 당신 자신은 주관적으로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당신 자신은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하실 때는 실제와 상관없이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만족의 정도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1. 아주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아니다. 5. 전혀 아니다.

1. 쉽게 감정이 잘 상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2.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 꺼내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3. 자주 긴장되거나 불안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4.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5. 친구들보다 못한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6. 신경이 너무 예민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7. 남들만큼 똑똑하지 못한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8.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져서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9. 쉽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10.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11.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12. 나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13. 어려운 일이 닥치면 회피해버리는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14.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15.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없는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16.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17. 나는 내 자신이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18. 내게 주어지는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19.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잘 못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20. 가족들로부터 사랑 받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 불만스럽다.	1	2	3	4	5

21. 나의 자신 없는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22.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23. 일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24. 사람들이 내게 함부로 대하도록 만든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25.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26.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27. 계획한 일들을 끝까지 잘 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28. 자주 우울해지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29. 여러 사람 앞에서 할 말을 잘 못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30.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31. 친구와 생각이 달라도 반대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32.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이 더 많았던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하면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33.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34. 가족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35.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36.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37. 살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온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38.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39. 일을 결정할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40. 나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없어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41. 나의 외모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42. 친한 친구가 없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43.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44.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45.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잘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46. 높은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47. 무슨 일을 하든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48. 사람들의 신뢰를 별로 받지 못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49.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50. 행복하지 못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51. 사소한 일로 마음을 잘 상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52.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53. 모임에 나가면 말도 못하고 가만있는 내 모습이 불만스럽다.	1	2	3	4	5
54. 누가 말을 걸 면 불안해지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55. 누가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하면 불안해지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56. 내 밥그릇을 잘 찾아먹지 못하는 내 모습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57.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친구가 없는 내 자신 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58. 대범하지 못하고 너무 예민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59. 내가 선택한 행동에 대해 자주 후회를 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60.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겁부터 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61.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너무 망설이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62. 사람들과 관계가 편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63.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좌우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64.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65. 평소에 마음이 자주 불안해지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66. 무리한 부탁인데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67. 평소에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끼는 내 모습이 불만스럽다.	1	2	3	4	5
68. 일을 요령 있게 잘 처리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69.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내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70.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71. 뭔가 내세울 것이 없는 내 자신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72. 길을 물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내 모습이 불만스럽다.	1	2	3	4	5
73.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쉽게 좌절하는 내 모습이 못마땅하다.	1	2	3	4	5
74. 너무 걱정이 많은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	1	2	3	4	5
75. 기분이 자주 나빠지는 내 모습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
76. 쉽게 마음이 잘 상하는 내 모습에 대해 불만스럽다.	1	2	3	4	5